한국인구학회지 제18권 1호 Pp. 89~117.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은 기 수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연구원)

이 연구는 1983년 전국인구이동조사 자료 중 개인사자료를 사용하여 한국인 남녀가 결혼으로 이행해 나갈 때 결혼에 관한 규범 중 연령규범과 순서규범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연령규범은 결혼적령기라는 개념으로 표현되고, 순서규범은 결혼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생애과정을 밟아야 하고,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결혼적령기까지 남자와 여자 모두 연령규범과 순서규범을 지키면서 결혼에 이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결혼적령기가 지나면 남자는 여전히 결혼 전에 안정된 직장을 확보해야 하는 순서규범에 큰 영향을 받지만, 여자의 경우는 결혼직전 경제활동상태에 관계없이 연령규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연구에서 상정한 가설 모두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는 1983년 자료를 통해 볼 때 한국인의 결혼 및 가족생활에서 남자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반면에 여자는 규범적 연령에 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Ⅰ. 들어가는 말

거의 모든 사회에 결혼에 관한 규범이 존재한다. 언제 결혼을 할 수 있느냐의 결혼시기에 관한 규범, 결혼을 할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느냐의 조건에 관한 규범,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느냐의 결혼상대에 관한 규범 등 여러 형태의 결혼규범이 존재한다. 결혼시기에 관한 규범은 한국사회에 '결혼적령기'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다. 보편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결혼풍습에서 남자나 여자를 불문하고 일정한 연령층에

도달하면 결혼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결혼시기에 관한 규범이 성인으로 이행하는 단계에 있는 젊은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조건에 관한 규범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남자의 경우 경제적인 능력을 지닌 가장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위해서 결혼 전에 안정된 직장을 확보하는 것이 결혼조건으로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빚어지는 문제의 하나인 남자들의 군복무도 결혼 전에 마치는 것이 정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자의 경우에 있어서 결혼조건에 관한 뚜렷한 규범을 설정하기는 쉽지 않다. 여자는 어느 때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지만 점차 최소한 교육은 다 마치고 결혼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로 인식되고 있다.

이 논문은 생애과정적 시각(the life course perspective)에서 결혼에 관한 여러 규범 중 언제 결혼해야 하느냐에 관한 연령규범과 결혼 전에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느냐에 관한 결혼조건의 규범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생애과정적 시각은 기본적으로 한 개인의 과거의 삶과 역사적인 상황이 현재의 삶의 양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삶이 미래의 삶에 또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결혼시기를 생애과정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결혼 전의 다양한 삶의 경험에 따라 결혼에 이르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뜻한다. 결혼시기에 관한 기존의 인구학적인 연구들이 집합적인 차원에서 정태적인 모습으로 결혼시기의 결정요인들을 다루어 왔다면, 생애과정적인 시각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결혼 전의 삶의 양태에 따라 결혼시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동적으로 보여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개인이 꾸려온 삶의 양태에 의해 결혼시기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먼저 연령규범과 결혼조건에 관한 규범(순서규범)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문제에 답해나가고자 한다.

Ⅱ. 결혼에 관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결혼에 관한 규범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범의 존재를 가정하기는 쉬워도 규범의 존재와 그 내용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들에서 규범의 존재를 가정하고 진행되는 연구나 혹은 규범적인 모델을 설정한 연구들에 대해 이미 비판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 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판적인 검토의 하나인 마리니(Marini, 1984)의 논의를 눈여겨 볼 필

요가 있다. 마리니는 성인기로 이행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흔히 규범의 존재가 경험적인 증거에 의해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통계적인 평균치를 가지고 행위의 균일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규범의 존재를 설정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비판하고 있다(Marini 1984: 232). 한국에서 결혼시기 및 결혼조건에 관한 규범이 존재한다고 가정한 것을 마리니의 논의방식으로 따져보면 단지 평균결혼연령이나 결혼에 이를 때까지 사람들이 어떤 삶의 궤적들을 밟아왔는지에 관한 평균적인 양상에 따라 규범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마리니의 문제제기 방식에 따라 결혼규범에 관한 경험적인 증거가 부족하니까 결혼에 관한 규범의 존재를 가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기 보다는 '행위자들이 그 자신들과 그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위자들의 행위가 합리적임을 확인시키기위해 유연하고 반성적으로 취하는 인지적인 안내체계 혹은 절차에 관한 규칙들'(DiMaggio and Powell, 1991: 21)이라는 의미로서 규범을 이해하면서 결혼규범의 존재를 가정하려고 한다. 마리니가 주장하는 것처럼 경험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해서 규범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고 진행되는 연구는 규범적인 모델을 설정한 연구에 비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 호간과 애스톤은 비교역사학적인 연구나 비교문화적인 연구에서 규범적인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논하고 있다(Hogan and Astone, 1986: 118).

규범적인 모델이 갖는 장점을 인식한다 해도 아무런 근거없이 규범의 존재를 설정할 수는 없다. 어떤 형태로든 한국사회에 결혼에 관한 규범이 존재함을 경험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결혼시기에 관한 규범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경우는 중매를 통한 결혼의 경우이다. 중매를 통한 결혼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의 하나는 연령이다. 중매장이들이 결혼상대를 맞출 때 고려하는 첫번째 요인은 바로 연령이다. 남자와 여자의 적절한 연령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적령기에 있는지 혹은 결혼적령기를 지나있는지가 연령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남자의 경우는 연령보다도 현재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하지만 여자의 경우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보다는 현재의 나이가 중매를 통한 결혼시장에서 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여자들은 다른 조건이 다 좋다 할지라도 결혼적령기를 지나 중매를 통해 결혼하려는 경우에 '불리함'을 경험하는 것이 흔한 일이다. '다 좋은데 나이가 좀 많아!' '아니, 이 나이되도

록 결혼을 안했다니, 신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야?' 등등, 나이가 많은 경우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중매를 통한 결혼시장에서 불리함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결혼시기에 관한 규범이 존재함을 뜻하며, '불리함'은 규범을 어긴 데 대한 부정적인 제재이다.

우리는 결혼시기에 관한 규범의 존재를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설이나 신문, 잡지에 실리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양귀자씨가 쓴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란 소설을 보자(양귀자, 1994). 이 소설은 양귀자씨가 그의 주위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고 묘사한 짧은 글들을 모은 것이다. 이 인물소설들 가운데 한 남자의 늦은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사랑은 그를 훈련시킨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이 이야기에서 양귀자씨는 '김불초소생'이라는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상대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고 막상 결혼했을 때 결혼상대자가 김씨라는 남자가 그리던 상대자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를 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한국사회에서 결혼에 관한 여러 규범들을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을 전제로 풀어 쓰고 있다.

> "불초소생씨는 이미 말한 대로 지금 목하 신혼 중이다. 사실 그의 신혼에 관해서라면 이렇게 덤덤하게 표현해서는 안된다. 자그마치 십년여 동안 **부모와 친지들의 애를 태우다** 간신히 하게 된 **노총각**의 결혼이니까 이럴 경우에는 평균치의 애정만 가지고 그의 신혼을 거론하기가 좀 서운하다. **보통 사람의 결혼 적령기**에서 거의 십년을 넘긴 결혼이니 불초소생씨의 나이는 이미 삼십대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처지이다. 게다가 그는 체통과 법도를 유난히 따지는 집안의 장남이다. 그의 부모들이 결혼할 생각도 하지않고 늙은 총각으로 세월만 보내는 아들을 보며 얼마나 애를 태웠을지는 보지 않아도 능히 알 수 있는 일이다.
>
> **막혀있는 앞차 덕분에 그의 남동생 하나와 여동생 둘도 덩달아 노총각 노처녀의 호칭을 얻고 있었으며**, 그의 아버님은 이것이 부끄러워 친척이나 친구분들 모임에 아예 불참하기를 예사로 했다고 들었다"(강조 필자 첨가) (양귀자, 1994: 24).

이처럼 양귀자씨는 늦게 결혼한 김불초소생씨의 결혼을 묘사하면서 결혼적령기, 형제내 결혼순서, 자식의 결혼에 대한 부모와 친지의 태도 등 결혼

에 관한 여러 규범들을 작가가 생각하는대로 독자들이 다 받아들일 것을 전제로 묘사하고 있다. 독자들도 이런 묘사를 읽으면서 거의 아무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노총각', '노처녀'라는 용어가 지금도 널리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결혼의 연령규범이 얼마나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결혼연령에 관한 규범이 결혼적령기의 개념으로 일반 사람들 사이에 보다 확실하게 자리잡고 있고, 결혼조건에 관한 규범도 그에 못지않게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다. 다만 결혼조건에 관한 규범은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가족생활은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여자는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결혼을 할 때 이 역할담당의 의미는 남자는 결혼 전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안정된 직업을 찾으려는 노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뒤바뀐 인과관계의 설정도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결혼하기 전에, 특히 중매를 통한 결혼시장에서는 대학원 등의 최고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거나, 고시 등의 특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장없는 남자가 결혼상대로 추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 보통 남자의 경우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 전에 교육과 군복무를 마치고 결혼생활의 경제적인 면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하나의 결혼조건에 관한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공세권 · 조애저 · 김승권 · 손성희, 1992: 92).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경우와는 다르다. 한국사회에서는 여자가 결혼 전에 남자처럼 꼭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학교교육을 마치고 집에서 놀고 있어도 '신부수업'이라는 명목으로 그 지위가 인정된다. 하지만 교육기회의 증가와 평균결혼연령의 상승이 함께 어울어져 여자도 교육은 다 마치고 결혼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기대된다(Kwon, 1982; Blossfeld and Huinink, 1991). 따라서 여자의 경우 규범적인 의미에서 결혼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을 마치는 것이다. 여자의 경우 교육과 결혼사이에 규범적인 생애과정이 있다면 이는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를 뒤집어 말하면 교육과 결혼사이에 뚜렷한 규범적인 이행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있다.

Ⅲ. 정돈된 삶과 흐트러진 삶의 정의

서구의 생애과정연구들(life course studies) 가운데 성인기로의 이행을 다룬 연구들에서 최근 생애사건의 연속들(sequences of life events)이 정돈된 삶(the orderly life course)인지 아니면 흐트러진 삶(the disorderly life course)인지, 그리고 정돈된 삶과 흐트러진 삶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점에 동질적(homogeneous) 효과를 갖는지 아니면 이질적(heterogeneous)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다(Rindfuss, Rosenfeld, and Swicegood, 1987; Rindfuss, 1991). 여기서 생애사건의 연속은 주로 교육, 군복무, 취업 및 실업 등의 경제활동상태가 여러 해에 걸쳐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성인기로의 이행은 주로 결혼이나 첫 출산을 할 때를 지칭한다. 또 정돈된 삶과 흐트러진 삶은 결혼 혹은 첫 출산을 할 때까지 생애사건의 연속이 규범적인 모형을 따르고 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서구의 생애과정연구들에 의하면 생애과정이 정돈되어 있는지, 흐트러져 있는지에 따라 결혼 후 이혼, 수입, 후기 생애과정의 심리적 안정성 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Hogan, 1981; McLanahan and Sørensen, 1985; Rindfuss, 1991).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의 의미를 교육을 마치고 결혼에 이를 때까지 어떤 삶의 궤적을 밟아왔는지의 문제로 파악하는데 이는 생애사건들의 연속들을 분석함으로써 드러난다. 서구의 성인기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들에서 정돈된 생애과정과 흐트러진 생애과정이 결혼시기 혹은 첫 출산 시기에 미치는 이질적인 영향에 주목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정돈된 생애과정과 흐트러진 생애과정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생애사건의 연속들이 결혼시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아 순서규범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생애사건의 연속을 정돈된 삶과 흐트러진 삶으로 구분할 때 미국의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 린드퍼스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미국의 경우와 비교연구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Rindfuss et al., 1987). 본 연구에서 남자의 경우 결혼에 이를 때까지 정돈된 생애사건의 연속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① 중단없이 계속 학생상태인 경우(S) ② 중단없이 학생상태에 이어 군복무한 경우(SM) ③ 중단없이 학생상태에 이어 군복무를 하고 다시 복학한 경우(SMS) ④ 학생으로 있다 군복무를 하고 복학한 후 졸업 후 취업을 한 경우(SMSE) ⑤ 학교를 마치고 군복무후 취업을 한 경우(SME) ⑥ 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한 경우(SE) ⑦ 학교를 마

치고 취업을 했다가 군복무를 한 경우(SME) ⑧ 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했다가 군복무를 하고 다시 취업을 한 경우(SEME) ⑨ 계속 취업상태인 경우(E) ⑩ 취업 중 군복무를 한 경우(EM) ⑪ 취업 중 군복무를 하고 재취업한 경우(EME).[1]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흐트러진 생애과정으로 파악한다.

여자의 경우 교육을 마친 후 결혼할 때까지 실업과 '현모양처'를 위한 준비상태의 구분이 모호하다. 하지만 자신의 경제활동상태를 실업이라고 정의한 경우는 '가사를 돌보고 있다'고 정의한 것과 차이가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자가 자신의 현 경제활동상태를 실업이라고 대답한 경우는 취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도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고 보며, 자신의 현 경제활동상태를 '가사를 돌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경우는 자의든 타의든 직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상태를 꼭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준비상태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여자의 정돈된 생애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① 중단없는 학생상태(S) ② 학생상태에 이어 취업을 한 경우(SE) ③ 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했다가 가사를 돌보고 있는 경우(SEH) ④ 학교를 마치고 가사를 돌보고 있는 경우(SH) ⑤ 취업하고 있는 경우(E) ⑥ 취업 후 가사를 돌보고 있는 경우(EH) ⑦ 계속 가사를 돌보고 있는 경우(H).[2]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흐트러진 생애과정으로 파악한다.

Ⅳ. 가설

사람들이 결혼하게 될 때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중 어느 쪽을 더 지키려고 하는지, 혹은 둘 다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지키는지 판단하기 힘들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남자의 경우 결혼하기 전에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결혼조건에 관한 규범, 즉 교육, 군복무, 취업의 순서(순서규범)를 거쳐 결혼에 이르려 할 것이다. 여자의 경우는 순서규범보다도 결혼적령기라는 연령규범에 더 얽매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

1) E는 취업상태를 나타내고 M은 군복무를 나타내며 S는 학생신분을 나타낸다. U는 실업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2) E, S, U의 정의는 각주 1)의 남자의 경우와 같다. H는 가사를 돌보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규범과 순서규범의 의미를 결혼적령기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해진다. 남자나 여자 모두 결혼적령기에 이를 때까지는 순서규범을 지키면서 결혼에 이른다. 그러나 결혼적령기를 지나면 남자와 여자의 경우 연령규범과 순서규범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즉 여자는 결혼적령기를 넘기면 어떤 경제활동상태에 있든지간에 결혼을 서두르나 남자의 경우 설혹 결혼적령기를 넘겼어도 결혼 전에 안정된 직장을 확보해야하는 순서규범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결혼적령기까지는 남자와 여자 모두 순서규범을 지킨다.

가설 2: 결혼적령기가 지나면 남자의 경우에는 순서규범이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지만 여자의 경우는 결혼적령기가 지나면 순서규범은 결혼시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V. 자료와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경제기획원과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1983년 제1회 전국인구이동조사 중 개인사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이 조사는 다단계층화표집방법을 이용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3,647명의 남자와 5,061명의 여자를 추출하여 14세부터 교육, 경제활동상태, 이동, 출산 등 모든 생애사건들에 관해 기록해 놓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4세부터 결혼할 때까지의 활동상태의 개인-매해기록(person-year record)을 이용한다.[3] 원자료는 14세부터 조사를 할 당시까지 일어난 모든 생애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결혼으로의 이행에 있기 때문에 14세부터 매년 활동상태를 추적하고 결혼을 하면 그 해에 자료를 자른다(truncate). 만약 35세에 이르도록 미혼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35세에 자료를 잘랐다. 또 결혼하기 전에 조사가 실시되었으면 조사년도에 그 개인의 자료는 센서(censored)된 것이다.

3) 자료 및 자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중치 부여방법 등에 관하여는 Eun(1994)을 참조할 것.

자료에 관해서 좀 더 설명할 부분이 있다. 1983년 전국인구이동조사 원자료는 14세부터 조사년도까지 중요한 생애사건들을 기록했지만 매해마다 기록하지는 않았다. 즉 중요한 생애사건이 일어난 해에만 기록을 한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아래에서 상술하겠지만, 개별시간로짓분석방법(discrete-time logit analysis)을 사용하고 있고, 이 분석방법을 위해서는 한 개인당 14세부터 결혼한 연도 혹은 조사시점까지 개인-매해기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를 이용해 한 개인이 14세부터 결혼한 해 혹은 조사년도까지 매해마다 개인-매해기록을 갖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해에 2개 이상의 생애사건이 발생하여 한 개인이 한 해에 2개 이상의 개인-매해기록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우리는 하나의 개인-매해기록을 갖도록 조정하였다.[4)]

개별시간로짓분석방법을 사용하면 분석에 이용되는 자료의 수가 조사대상자의 수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자가 제공하는 개인-매해기록의 수로 나타난다. 예컨대 남자 18세에서 27세까지 묶어 분석한 경우 총 개인-매해기록의 수는 25,725.91로 나타난다. 소수점이하가 나타나는 것은 가중치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종속변수는 시간 t-1에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 시간 t에 결혼을 했느냐의 여부이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결혼했을 경우 0,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 1이라는 두가지의 값을 갖는다. 우리가 측정하는 독립변수는 생애사건의 연속(sequences of life events)이다. 독립변수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연령, 출생코호트, 교육수준을 통제한다.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중 생애사건의 연속, 연령, 교육수준은 시간종속변수이다. 시간종속변수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수의 값이 변할 수 있게 설정되어 있는 변수이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가 28세에 결혼한 경우 14세 부터 28세까지의 개인-매해기록에서 연령이 해마다 변하고 생애사건의 연속도 해를 거듭할수록 달라지며, 교육수준 역시 최종 교육을 마칠 때까지 연령에 따라 변하게 된다. 오직 출생코호트변수만 어느 연령에도 변하지 않는 시간독립변수이다. 시간종속변수의 활용은 사건사분석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의 독립변수인 생애사건연속에 관하여 좀 더 설명하겠다. 생애사건연속은 나이를 먹을수록 길어진다. 14세인 경우에는 하나의 활동상태를

4) 2개 이상의 개인-매해기록이 나올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냐하는 것은 사건사분석방법의 중요한 쟁점이다. 특히 1983년도 전국인구이동자료를 분석한 두 논문, Eun(1994)과 Kim(1993)은 이 문제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취급하였다. 두 논문을 참조할 것.

가지지만 예를 들어 28세 남자의 생애사건연속은 SSSSSSMMMUUEEEE과 같은 경우로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의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 린드퍼스 및 그 동료들은 위의 경우 SMUE식으로 압축형 생애사건연속(compressed sequences of life events)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 경우 각 활동상태의 기간(duration)을 자의적으로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다. 기간을 무시한 결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28세에 결혼할 확률을 생각할 때 14세부터 28세까지의 전체 생애사건연속을 고려할 필요 혹은 이론적 근거가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결정론적 생애과정관점(the determinant life course perspective)과 유연한 생애과정관점(the flexible life course perspective)이라는 측면에서 Eun(1994)에서 상세히 논의되었다. Eun(1994)의 연구결과 유연한 생애과정관점이 더 타당한 이론적 접근방법으로 드러났다. 유연한 생애과정관점이 더 유용한 접근방법이라는 의미는 전체 생애사건연속을 고려하기보다 가까운 과거가 현재의 행위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시간 t에서의 생애사건연속으로 시간 t 이전의 매해의 활동상태의 연속인 전체 생애사건연속을 가정하지 않고 유연한 생애과정관점에 따라 과거 4년간의 생애사건연속을 시간 t에서의 생애사건연속으로 간주하였다. 즉, 시간 t-4, t-3, t-2, t-1의 활동상태의 연속으로 구성하였다. 위에서 든 예의 경우 28세 때(시간 t28)의 생애사건연속은 UEEE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생애사건연속의 구성방법에 따른 정상적인 생애과정과 흐트러진 생애과정의 분류의 예가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자료를 결혼적령기에 따라 각각 두 개의 자료로 묶었다. 이 연구에서는 임의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결혼적령기를 1970년의 평균결혼연령으로 간주하고 남자는 18세에서 27세까지 및 28세 이상으로 자료를 묶고, 여자는 18세에서 23세까지 및 24세 이상으로 자료를 묶었다.

[그림 1] 결정론적 생애과정관점과 유연한 생애과정관점에 따른 정돈된 생애과정과 흐트러진 생애과정의 가상적인 몇가지 예: 남자

see p.95

예 1

연령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활동상태	S	S	S	S	S	U	S	S	M	M	M	U	S	S	E	E
결정론적		O	O	O	O	O	D	D	D	D	D	D	D	D	D	D
유연한 관점					O	O	D	D	D	D	O	O	D	D	D	D

예 2

연령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활동상태	S	S	S	E	E	U	M	M	M	E	E	E	E	E	E	E
결정론적		O	O	O	O	O	D	D	D	D	D	D	D	D	D	D
유연한 관점					O	O	D	D	D	D	O	O	O	O	O	O

예 3

연령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활동상태	S	S	U	S	S	S	M	M	M	U	U	E	E	U	U	U
결정론적		O	O	D	D	D	D	D	D	D	D	D	D	D	D	D
유연한 관점					D	D	D	O	O	O	D	D	D	D	D	D

주: 1) 활동상태에서 E, M, S, U는 각각 취업중, 군복무, 학생, 실업상태를 나타낸다.
2) O와 D는 각각 정돈된 생애와 흐트러진 생애를 나타낸다.
3) 결정론적 관점은 한 번 흐트러진 생애과정이 되면 그 이후의 삶은 계속 흐트러진 생애과정으로 가정하는 입장이다. 이 글에서 유연한 생애과정은 과거 4년만의 생애사건연속을 고려하여 먼 과거에 흐트러진 삶을 경험했어도 최근 4년의 삶이 정돈된 생애사건연속이면 정돈된 생애과정으로 가정하는 입장이다.

[그림 2] 결정론적 생애과정관점과 유연한 생애과정관점에 따른 정돈된 생애과정과 흐트러진 생애과정의 가상적인 몇가지 예: 여자

예 1

연령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활동상태	S	S	S	S	S	U	E	E	E	E	H	H	H
결정론적		O	O	O	O	O	D	D	D	D	D	D	D
유연한 관점					O	O	D	D	D	D	O	O	O

예 2

연령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활동상태	S	S	U	U	U	U	U	H	H	H	H	H	H
결정론적		O	O	D	D	D	D	D	D	D	D	D	D
유연한 관점					D	D	D	D	D	D	D	O	O

예 3

연령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활동상태	S	S	S	S	S	U	H	H	E	E	E	E	E
결정론적		O	O	O	O	O	D	D	D	D	D	D	D
유연한 관점					O	O	D	D	D	D	D	D	O

주: 1) 활동상태에서 E, H, S, U는 각각 취업중, 가사, 학생, 실업상태를 나타낸다.
2) O와 D는 각각 정돈된 생애와 흐트러진 생애를 나타낸다.
3) 결정론적 관점은 한 번 흐트러진 생애과정이 되면 그 이후의 삶은 계속 흐트러진 생애과정으로 가정하는 입장이다. 이 글에서 유연한 생애과정은 과거 4년만의 생애사건연속을 고려하여 먼 과거에 흐트러진 삶을 경험했어도 최근 4년의 삶이 정돈된 생애사건연속이면 정돈된 생애과정으로 가정하는 입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건사분석방법(event history analysis)을 사용한다.[5]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자료가 개인-매해기록으로 되어 있고 종속변수의 값이 0 또는 1이므로 개별시간로짓분석방법(discrete-time logit analysis)을 이용한다. 본 연구의 모델은 다음과 같다.

$$\ln(P(t_i)/(1-P(t_i))) = a_i + b_{ji}X_j + c_{ki}X_k$$

위의 모델에서 $P(t_i)$는 시간 t에 결혼할 확률이다. 따라서 모델의 왼쪽 항이 시간 t에 결혼할 확률의 로그오즈(log-odds)로 표현된 것이다. i 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을 나타내고, b_{ji}는 시간독립변수의 모수측정치값들이며, c_{ki}는 시간종속변수의 모수측정치값들이다. X_j는 시간독립변수들이며 X_k는 시간종속변수들이다.

자료의 분석은 SAS의 PROC LOGIST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VI. 결과 및 해석

1. 그래프를 이용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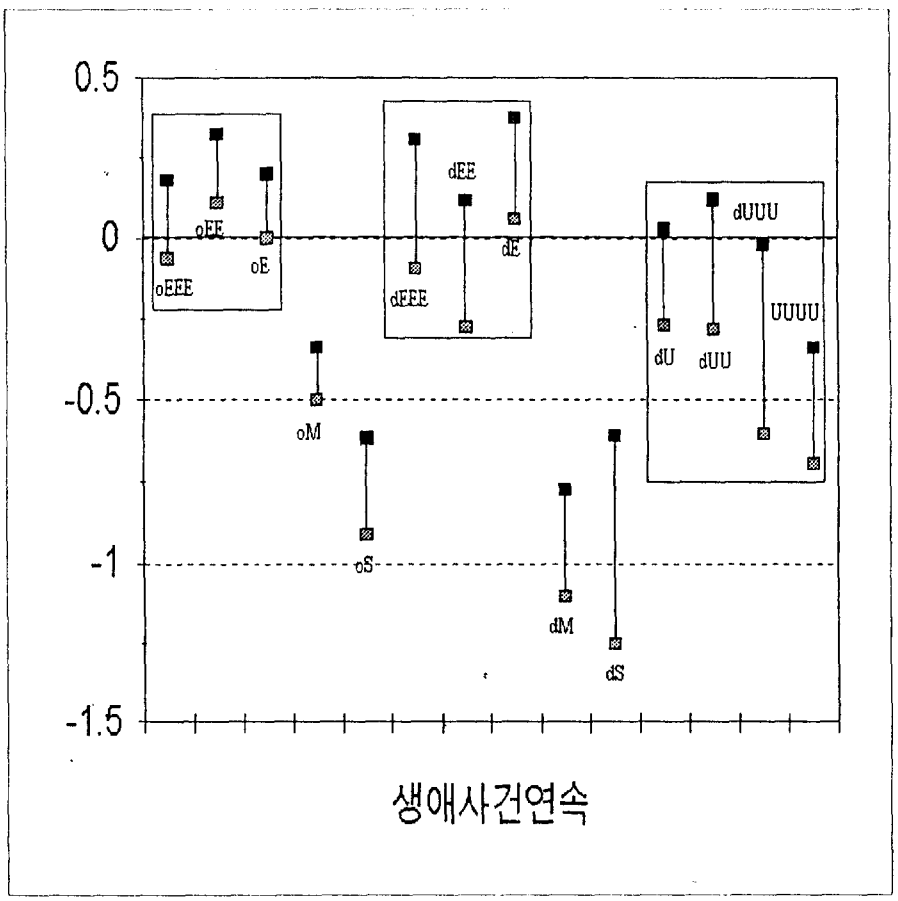
[그림 3]부터 [그림 6]은 시간 t에 최근 과거 4년의 생애사건연속이 4년간 연속 취업상태인 경우(EEEE)를 준거로 삼았을 때 각 생애사건연속이 갖는 측정치에 표준오차를 더하고 뺌으로써 생기는 범위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 및 표에 나오는 생애사건연속의 표시방법을 여기서 잠깐 설명하겠다. 소문자 o와 d는 각각 정돈된(orderly) 생애과정과 흐트러진(disorderly) 생애과정을 나타낸다. E는 취업중, S는 학생, M은 군복무, H는 가사를 돌보고 있는 경우, U는 실업상태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dEEE는 과거 4년의 생애사건연속이 전체적으로는 흐트러진 생애과정이지만 최근 과거 3년 동안은 취업중임을 나타낸다.

[그림 3]을 보자. 남자 18세부터 27세까지의 경우 각각의 생애사건연속들이 결혼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생애사건연속이 취업중으로 끝나는 경우는 학생, 군복무, 혹은 실업상태로 끝나는 생애사건연속들보다 결혼할 확률이 높음을 보여준다. 취업중으로 끝나는 생애사

5) 사건사분석방법에 관해서는 Allison(1984)과 Yamaguchi(1991)를 참조할 것.

건연속들의 결혼할 확률이 다른 활동상태로 끝나는 생애사건연속들의 확률보다 크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한대로 결혼적령기까지는 남자의 경우 순서규범을 지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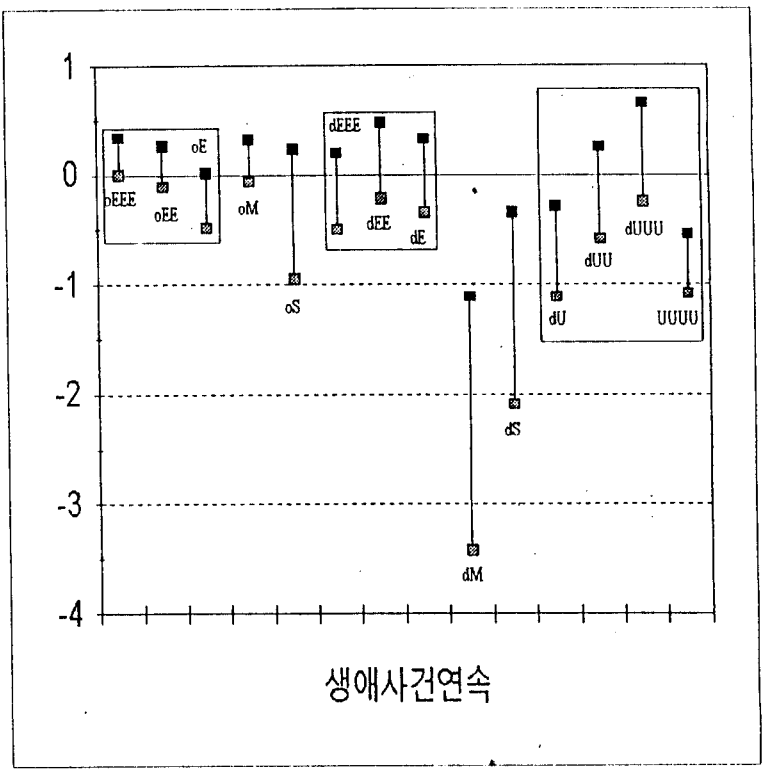
[그림 3] 과거 4년의 생애사건연속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로짓 분석의 결과로 얻은 모수추정치 ± 1 표준오차: 남자 18세~27세



주 1 : 생애사건연속의 준거는 EEEE이다.
주 2 : 소문자 o와 d는 각각 정돈된 생애와 흐트러진 생애를 나타낸다.
대문자 E는 취업중, M은 군복무, S는 학생, U는 실업상태를 나타낸다.

[그림 4]는 결혼적령기를 지났을 때 생애사건의 연속에 따라 남자들의 결혼할 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정돈된 삶의 영역에서는 생애사건연속들의 결혼할 확률에 대한 영향력이 동질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직전의 활동상태가 무엇이든지간에 과거의 삶이 정돈된 삶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결혼할 확률에 별 다른 차이가 있어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흐트러진 삶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생애사건연속들의 영향이 이질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 t 이전에 취업상태에 있지 않는한 남자들은 결혼으로의 이행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과거 4년의 생애사건연속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로짓 분석의 결과로 얻은 모수추정치 ± 1 표준오차: 남자 28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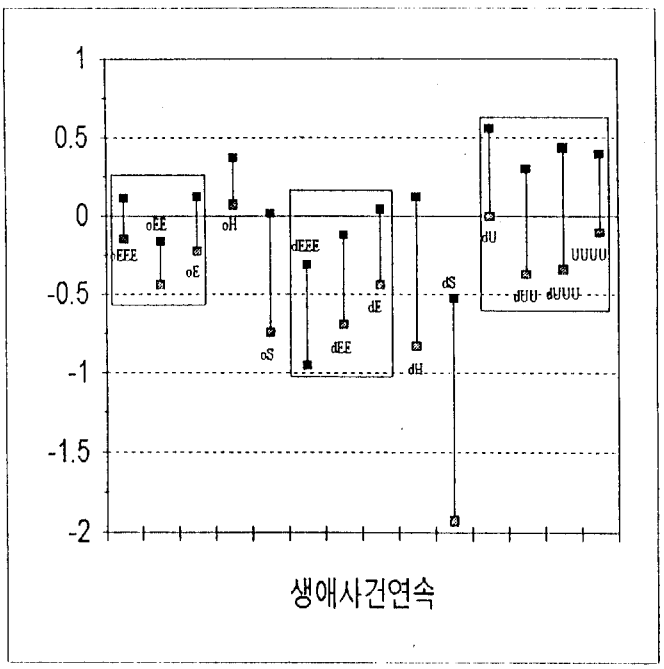
주 1 : 생애사건연속의 줄기는 EEEE이다.
주 2 : 소문자 o와 d는 각기 정돈된 생애와 흐트러진 생애를 나타낸다.
대문자 E는 취업중, M은 군복무, S는 학생, U는 실업상태를 나타낸다.

[그림 3]과 [그림 4]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남자의 경우 결혼적령기에 이를 때 뿐만 아니라 결혼적령기 이후에도 결혼 전에 안정된 직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일종의 순서규범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기할 것은 취업기간에 따른 생애사건연속들의 이질적인 영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취업기간에 관계없이, 일단 취업을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남자의 결혼으로의 이행은 안정된 직장의 확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음을 [그림 3]과 [그림 4]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5]는 여자의 경우 결혼적령기로 가정된 23세까지 다양한 생애사건연속들이 결혼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최근 과거 4년간 연속 취업상태에 있는 경우를 준거로 하여 나타내고 있다. 남자의 경우에서처럼 여자의 경우도 결혼적령기에 이를 때까지 각 생애사건연속이 갖는 영향력이 이질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남자의 경우와 몇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나타난다. 첫째로 생애사건연속이 취업상태로 끝나는 경우에 취업기간에 따라 생애사건연속의 영향이 이질적이라는 점이다. 남자의 경우 생애사건연속이 취업중으로 끝나는 경우에 취업기간에 관계없이 동질적인 영향을 나타냈지만 여자의 결혼할 확률은 취업기간과 비례적인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 여자의 경우 시간 t-1 혹은 그 이전에 취업중인 경우에 집에서 가사를 돌보고 있는 경우보다 결혼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여자에게 남자처럼 결혼 전에 취업해야 한다는 순서규범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집에서 가사를 돌보고 있는 상태는 적극적으로 결혼으로 이행할 가능성을 안고 있음을 뜻한다. 세째로 결혼 전에 실업상태로 있다 할지라도 한국여자는 취업중인 여자에 비해 결혼으로 이행하는데 있어 전혀 불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생애사건연속이 실업으로 끝나는 경우에도 가사를 돌보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업중인 경우보다 결혼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결혼 전에 가사를 돌보는 식으로 집에 있거나 직장을 가지고 싶어도 실업상태로 있는 경우에 양귀자 소설에 나오는 김불초소생씨의 부모, 친지처럼 부모나 친지들이 결혼을 서두르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직장을 가진 여자보다 결혼으로의 이행을 더 서두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실업상태와 가사를 돌보고 있다고 대답하는 두 경우에 있어서 결혼으로 이행할 확률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은 가사를 돌보고 있는 경우와 실업상태로 구분하는 것이 여자의 경우 별다른 의미가 없을 가능성도 보여준다. 또 두 경우를 묶어서 생각하면 뚜렷한 경제활동상태에 있지 않은 한국여성이 결혼을 통해 경

제적인 독립을 얻기 위해서 결혼으로 이행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림 5]를 통해 생애사건연속이 결혼 전에 이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이는 남자의 경우와는 다른 의미에서 생애사건의 연속들이 결혼시기에 이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

[그림 5] 과거 4년의 생애사건연속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로짓 분석의 결과로 얻은 모수추정치 ± 1 표준오차: 여자 18세~23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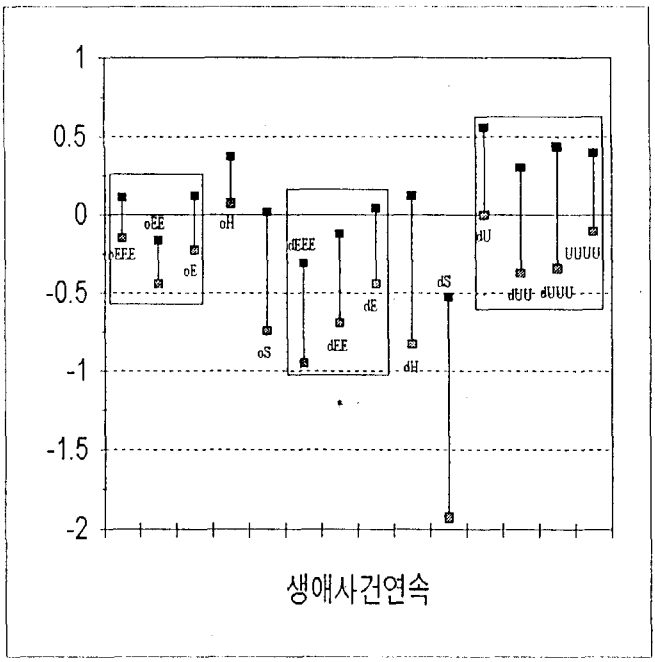


주 1 : 생애사건연속의 준거는 EEEE이다.
주 2 : 소문자 o와 d는 각기 정돈된 생애와 흐트러진 생애를 나타낸다.
대문자 E는 취업중, H는 기사, S는 학생, U는 실업상태를 나타낸다.

[그림 6]은 여성의 경우 결혼적령기를 지난 연령층에서 생애사건연속들이 갖는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그림 6]으로부터 흐트러진 삶의 영역의 학생으로 끝난 생애사건연속(dS)을 제외하곤 생애사건연속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이질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이는 남자와는 달리 한국 여성의 경우 결혼적령기를 지나면 어떤 활동상태에 있든지 간에 결혼

할 확률은 거의 같음을 의미한다. 중매를 통한 결혼시장에서 여성의 경우 현재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도 나이가 더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발견은 결코 놀라운 점이 아니다.

[그림 6] 과거 4년의 생애사건연속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로짓 분석의 결과로 얻은 모수추정치 ± 1 표준오차: 여자 24세 이상



주 1 : 생애사건연속의 준거는 EEEE이다.
주 2 : 소문자 o와 d는 각각 정돈된 생애와 흐트러진 생애를 나타낸다.
대문자 E는 취업중, H는 가사, S는 학생, U는 실업상태를 나타낸다.

[그림 5]와 [그림 6]을 통하여 우리는 한국 여성들의 결혼에 연령규범과 순서규범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개괄적으로 말할 수 있다. 먼저 결혼적령기에 이를 때까지는 각각의 생애사건연속들이 이질적인 영향을 가져 마치 남자들의 경우에서처럼 순서규범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남자의 경우처럼 여자도 취업을 해야 결혼으로의 이행이 순조로워진다는 의미에서의 순서규범을 뜻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예상한대로 직전의 활동상태가 학생인 경우 다른 어떤 경우보다 결혼으로의 이행이 어려움이 드러난다. 그러나 결

혼적령기를 지나면 생애사건연속은 결혼할 확률에 차별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이는 결혼적령기를 지나면 어떤 활동상태에 있든지간에 자의든 혹은 부모 및 친지 등 주위의 압력으로 결혼으로 이행해 갈 가능성이 큼을 시사하고 있다.

2. 모델 비교에 의한 분석

지금까지 우리는 그래프를 통해 결혼으로 이행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이 성별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검토하였다. 우리는 그래프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각 생애사건연속의 영향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래프를 통한 분석은 통계적인 엄밀성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그래프를 통한 직관적인 이해가 통계적 엄밀성으로 지지되어야 우리의 분석이 타당성을 인정받는다.

<표 1>은 남자 18세에서 27세까지의 경우 정돈된 삶의 영역과 흐트러진 삶의 영역에서 생애사건연속들이 이질적인 효과를 갖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정돈된 삶의 영역에서 생애사건의 연속들이 이질적인 효과를 갖는지를 보기위해 동질적인 효과를 가정하는 모델 1과 이질적인 효과를 가정하는 모델 3을 비교하였다.[6] 두 모델의 비교는 모델 3이 모델 1보다 자료에 적합도가 더 높은 모델인가를 검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는 또 정돈된 생애과정이 사실은 이질적인 효과를 갖는 생애사건연속들로 묶여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유의도 검정 결과 우리는 99%의 유의도 수준에서 정돈된 생애과정내에서도 각각의 생애사건연속들이 이질적인 영향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에 흐트러진 삶의 영역에서도 생애사건연속들이 이질적인 효과를 갖는지를 보기위해서 모델 1과 모델 2를 비교하였다.[7] 역시 이 경우에도 99% 유의도 수준에서 흐트러진 삶의 영역에 속한 각각의 생애사건연속들은 이질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표 1에서 모델 1에 모델 2와 모델 3을 비교한 유의도 검정 결과는 [그림 3]을 통해 우리가 내렸던 결론, 즉 결혼적령기에 이를 때까지 남자의 경우에 있어서 각각의 생애사건연속은 이질적인 효과를 갖고, 이는 결혼으로의 이행에 순서규범이 작용한다는 가설이 통계적으로도 뒷받침됨을 나타낸다.

---

6) 모델 1 대 모델 3 L^2=73.474 2 d.f. p<.001
7) 모델 1 대 모델 2 L^2=33.884 3 d.f. p<.001

<표 1> 결혼시기에 미치는 생애사건연속의 이질적 영향: 남자 18세~27세

변 수	모델 1 추정치(표준오차)	모델 2 추정치(표준오차)	모델 3 추정치(표준오차)
절편	-3.2138 (.1045)**	-3.2368 (.1045)**	-3.2829 (.1158)**
연령			
18-19	준거	준거	준거
20-21	0.5811 (.1079)**	0.5812 (.1079)**	0.4050 (.1105)**
22-23	1.1051 (.1028)**	1.1666 (.1034)**	0.9535 (.1072)**
24-25	1.7741 (.0993)**	1.8059 (.0996)**	1.6149 (.1051)**
26-27	2.6886 (.0978)**	2.6929 (.0978)**	2.4525 (.1034)**
출생코호트			
-1939	준거	준거	준거
1940-1949	-0.7145 (.0677)**	-0.7207 (.0678)**	-0.7363 (.0679)**
1950-1959	-0.6049 (.0654)**	-0.6224 (.0656)**	-0.6486 (.0659)**
1960-	-0.9035 (.1579)**	-0.9310 (.1582)**	-0.8701 (.1580)**
교육수준			
국민학교 또는 그이하	0.0448 (.0723)**	0.0519 (.0724)**	-0.0015 (.0724)**
중학교	준거	준거	준거
고등학교	-0.2200 (.0718)**	-0.2043 (.0720)**	-0.1251 (.0728)**
대학교 또는 그이상	-0.7946 (.0923)**	-0.7722 (.0935)**	-0.4953 (.0990)+
생애사건연속			
o	준거		
d	-0.1746 (.0676)**		
생애사건			
o		준거	
d		0.0974 (.0797)**	
dE		준거	
dM		-0.8478 (.1738)**	
dS		-0.7756 (.3227)*	
dU		-0.5240 (.1890)**	
생애사건			
o			0.3780 (.0710)**
oE			준거
oM			-0.4296 (.0755)**
oS			-0.9571 (.1429)**
d			준거
-2 Log L.(자유도)	1580.664 (11)	1614.548 (14)	1654.390 (13)
총개인-매해기록수	25725.91	25725.91	25725.91
결혼수	1753.540	1753.540	1753.540

주: 소문자 o와 d는 각각 정돈된 생애와 흐트러진 생애를 나타낸다. 대문자 E, M, S, U는 각각 취업중, 군복무, 학생, 실업을 나타낸다.

** 0.01수준에서 유의미함 * 0.05수준에서 유의미함 + 0.1수준에서 유의미함

<표 2>는 결혼적령기를 지나서 각각의 생애사건연속이 이질적인 영향력을 갖는지를 보여주는 모델들을 보여주고 있다. 정돈된 삶의 영역에서 생애사건연속의 동질적인 영향력을 가정한 모델 1과 이질적인 영향력을 가정한 모델 3을 비교한 결과 모델 3이 모델 1보다 더 나은 모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결혼적령기를 지나면 정돈된 생애과정내에서 다양한 생애사건연속이 동질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흐트러진 삶의 영역에서 생애사건연속들이 이질적인 효과를 가지는지를 보기 위해 모델 1과 모델 2를 비교하였다.[8] 비교 결과 모델 2는 모델 1보다 자료에의 적합도가 더 나은 모델로 판명된다. 이는 흐트러진 삶의 영역에서 생애사건연속들이 이질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는 바로 앞서 그림을 통해 해석한대로 직전 활동상태가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결혼적령기를 지난다해도 남자들은 결혼으로 이행하기 어려움을 통계적으로 엄밀히 보여주는 것이다.

<표 3>은 여자 18세에서 23세, 즉 결혼적령기까지 생애사건연속의 영향력이 동질적인지 아니면 이질적인지를 보기위한 모델을 나타내주고 있다. 여자의 경우도 통계적인 유의도 검정의 결과 정돈된 삶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흐트러진 삶의 영역에서도 각각의 생애사건연속들이 이질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드러난다. 모델 1과 모델 3의 비교 결과는 정돈된 삶의 영역에서 생애사건연속이 이질적인 영향력을 가짐을 보여주고[9] 모델 1과 모델 2의 비교 결과는 흐트러진 삶의 영역에서도 생애사건연속이 이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10] 하지만 통계적 유의도의 검정으로 생애사건연속이 이질적인 영향을 갖고 이는 곧 여자의 경우에도 결혼전에 순서규범이 준수된다는 식의 단순한 해석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그림을 통한 해석에서도 언급했듯이, 여성의 경우 생애사건연속의 이질적 효과의 의미는 남자와는 전혀 다른 의미임을 주목해야 한다. 취업이 결혼의 전제조건이 되는 남자의 순서규범과는 달리 여자는 실업 혹은 가사를 돌보는 경우가 결혼으로의 이행을 앞당길 수 있는 의미의 이질적 효과임을 인식해야 한다.

---

8) 모델 1 대 모델 2 L^2=11.681 1 d.f. $p<0.01$
9) 모델 1 대 모델 3 L^2=46.695 2 d.f. $p<0.001$
10) 모델 1 대 모델 2 L^2=13.229 3 d.f. $p<0.01$

<표 2> 결혼시기에 미치는 생애사건연속의 이질적 영향: 남자 28세이상

변 수	모델 1 추정치(표준오차)	모델 2 추정치(표준오차)	모델 3 추정치(표준오차)
절편	-0.8750 (.1406)**	-0.8660 (.1412)**	-1.3076 (.1818)**
연령			
28-29	준거	준거	준거
30-31	0.1229 (.1074)	0.1364 (.1079)	0.1220 (.1078)
32-33	-0.1890 (.1570)	-0.1661 (.1578)	-0.1854 (.1578)
34-35	-0.1868 (.2146)	-0.1709 (.2153)	-0.1792 (.2156)
출생코호트			
-1939	준거	준거	준거
1940-1949	0.3773 (.1070)**	0.3523 (.1076)**	0.3831 (.1076)**
1950-1959	0.2226 (.1305)+	0.1939 (.1316)	0.2343 (.1317)+
교육수준			
국민학교 또는 그이하	-0.3869 (.1447)**	-0.3685 (.1453)*	-0.3874 (.1447)**
중학교	준거	준거	준거
고등학교	-0.1815 (.1434)	-0.1903 (.1435)	-0.1820 (.1434)
대학교	-0.2216 (.1436)	-0.2238 (.1444)	-0.2121 (.1442)
생애사건연속			
o	준거		
d	-0.4239 (.1353)**		
생애사건연속			
o		준거	
d		-0.1453 (.1593)	
dE		준거	
dM		-2.1345 (1.1595)*	
dS		-1.1397 (.8828)	
dU		-0.6833 (.3113)*	
생애사건연속			
o			0.4201 (.1361)**
oE			준거
oM			0.0992 (.1866)
oS			-0.3711 (.5884)
d			준거
-2 Log L.(자유도)	40.121 (9)	51.802 (14)	40.841 (11)
총개인-매해기록수	2461.97	2461.97	2461.97
결혼수	688.890	688.890	688.890

주: 소문자 o와 d는 각각 정돈된 생애와 흐트러진 생애를 나타낸다. 대문자 E, M, S, U는 각각 취업중, 군복무, 학생, 실업을 나타낸다.

** 0.01수준에서 유의미함 * 0.05수준에서 유의미함 + 0.1수준에서 유의미함

<표 3> 결혼시기에 미치는 생애사건연속의 이질적 영향: 여자 18세~23세

변 수	모델 1 추정치(표준오차)	모델 2 추정치(표준오차)	모델 3 추정치(표준오차)
절편	-1.9602 (.1011)**	-1.9597 (.1015)**	-1.8372 (.0982)**
연령			
18	준거	준거	준거
19	0.2256 (.0957)*	0.2277 (.0958)*	0.2028 (.0964)*
20	0.5485 (.0947)**	0.5411 (.0948)**	0.4537 (.0959)**
21	1.0364 (.0924)**	1.0267 (.0926)**	0.9155 (.0942)**
22	1.4358 (.0938)**	1.4246 (.0934)**	1.2994 (.0956)**
23	1.6874 (.0986)**	1.6663 (.0989)**	1.5285 (.1014)**
출생코호트			
-1939	준거	준거	준거
1940-1949	-0.9777 (.0763)**	-0.9745 (.0764)**	-0.9636 (.0762)**
1950-1959	-0.7601 (.0726)**	-0.7398 (.0656)**	-0.7556 (.0728)**
1960-	-0.9865 (.1049)**	-0.9572 (.1057)**	-0.9628 (.1054)**
교육수준			
국민학교 또는 그이하	0.4528 (.0663)**	0.4231 (.0677)**	0.4255 (.0663)**
중학교	준거	준거	준거
고등학교	-0.7741 (.0802)**	-0.7412 (.0810)**	-0.5959 (.0832)**
대학교	-1.4043 (.1600)**	-1.3361 (.1611)**	-0.8313 (.1772)**
생애사건연속			
o	준거		
d	0.0659 (.0540)		
생애사건연속			
o		준거	
d		-0.4024 (.0726)	
dE		준거	
dH		0.3294 (.2346)	
dS		-1.1713 (.6051)+	
dU		0.1964 (.0822)*	
생애사건연속			
o			-0.0001 (.0593)
oE			준거
oH			0.0966 (.0953)
oS			-1.0730 (.1752)**
d			준거
-2 Log L.(자유도)	1151.856 (12)	1165.085 (15)	1198.512 (14)
총개인-매해기록수	14049.78	14049.78	14049.78
결혼수	1781.120	1781.120	1781.120

주: 소문자 o와 d는 각각 정돈된 생애와 흐트러진 생애를 나타낸다. 대문자 E, H, S, U는 각각 취업중, 가사를 돌보는 경우, 학생, 실업을 나타낸다.

** 0.01수준에서 유의미함 * 0.05수준에서 유의미함 + 0.1수준에서 유의미함

<표 4>는 결혼적령기를 지났을 때 여자들의 생애사건연속이 동질적인 효과를 갖는지, 아니면 이질적인 효과를 갖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다. 먼저 정돈된 삶의 영역에서 생애사건연속이 이질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모델 1과 모델 3을 비교하였다.[11] 비교결과 생애사건연속이 이질적인 영향력을 갖는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못한다. 모델 1에 비해 모델 3의 자료에의 적합도 향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흐트러진 삶의 영역에서 생애사건연속이 이질적인 영향력을 갖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모델 1과 모델 2를 비교하였다.[12] 유의도 검정 결과 흐트러진 삶의 영역에서도 역시 각각의 생애사건연속이 이질적인 효과를 갖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을 통한 분석을 통계적으로 지지해준다. [그림 6]에서도 우리는 여자가 결혼적령기를 지나는 경우 생애사건연속이 이질적인 효과를 갖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과 <표 4>의 분석결과는 결혼적령기를 지나면 결혼으로 이행하는데 직전 활동상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한국 여자에게 있어 결혼적령기를 넘어 나이를 먹어가는 것은 결혼시장에서 가치를 급속히 저하시키는 일이고, 더 많은 불리함을 당하기 전에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부모나 친지들의 관심과 함께 결혼으로의 이행을 서두르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11) 모델 1 대 모델 3 L^2=2.185 2 d.f. $p>0.1$
12) 모델 1 대 모델 2 L^2=6.033 3 d.f. $p>0.05$

<표 4> 결혼시기에 미치는 생애사건연속의 이질적 영향: 여자 24세이상

변 수	모델 1 추정치(표준오차)	모델 2 추정치(표준오차)	모델 3 추정치(표준오차)
절편	-0.7678 (.1558)**	-0.7780 (.1562)**	-0.7701 (.1584)**
연령			
24-25	준거	준거	준거
26-27	0.0822 (.1048)	0.0763 (.1050)	0.0793 (.1050)
28-29	-0.2036 (.1613)	-0.2105 (.1617)	-0.2014 (.1615)
30-31	-0.3985 (.2397)+	-0.3957 (.2407)	-0.3994 (.2398)+
32-33	-0.7246 (.3823)+	-0.7446 (.3826)+	-0.7209 (.3825)+
34-35	-1.0923 (.5535)*	-1.0794 (.5545)+	-1.0932 (.5536)*
출생코호트			
-1939	준거	준거	준거
1940-1949	0.2934 (.1351)*	0.2899 (.1354)*	0.2987 (.1355)*
1950-1959	0.1547 (.1381)	0.1685 (.1392)	0.1626 (.1389)
교육수준			
국민학교 또는 그이하	0.0076 (.1241)	-0.0084 (.1244)	0.0063 (.1242)
중학교	준거	준거	준거
고등학교	-0.3910 (.1154)**	-0.3857 (.1156)**	-0.3702 (.1163)**
대학교	-0.4705 (.1447)**	-0.4071 (.1478)**	-0.4283 (.1484)**
생애사건연속			
o	준거		
d	0.0090 (.0877)		
생애사건연속			
o		준거	
d		-0.1450 (.1326)	
dE		준거	
dH		-0.2100 (.3954)	
dS		-1.0591 (1.077)	
dU		0.2635 (.1475)+	
생애사건연속			
o			-0.0527 (.0924)
oE			준거
oH			0.2170 (.1599)
oS			-0.2500 (.4657)
d			준거
-2 Log L. (d.f.)	43.291 (11)	49.324 (14)	45.520 (13)
총개인-매해기록수	2526.87	2526.87	2526.87
결혼수	774.26	774.26	774.26

주: 소문자 o와 d는 각각 정돈된 생애와 흐트러진 생애를 나타낸다. 대문자 E, H, S, U는 각각 취업중, 가사를 돌보는 경우, 학생, 실업을 나타낸다.

** 0.01수준에서 유의미함 * 0.05수준에서 유의미함 + 0.1수준에서 유의미함

Ⅶ. 결론 및 토의

이 논문에서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결혼에 관한 규범 중 연령규범과 순서규범이 결혼으로의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우리는 결혼적령기까지는 남자나 여자 모두 결혼 전에 무슨 무슨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순서규범이 지켜진다고 가정했다. 반면에 결혼적령기를 지나면 여자는 순서규범보다 연령규범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남자의 경우는 여전히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순서규범에 강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1983년 전국인구이동조사중 개인사자료를 통해 이러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우리는 결혼적령기까지는 남자와 여자 모두 생애사건연속이 이질적인 영향을 가짐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질적인 영향의 존재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같은 의미에서의 순서규범의 준수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남자의 경우 우리가 가정한대로 결혼하기 전에 안정된 직업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의 순서규범이 결혼적령기에 이를 때까지 큰 영향력을 발휘함을 확인했다. 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생애사건연속의 이질적인 영향의 의미가 남자와는 달랐다. 여자의 경우는 생애사건연속이 취업으로 끝난 경우도 취업기간에 따라 생애사건연속들간에 이질적인 영향력이 존재했으며, 실업상태로 있거나 가사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도 취업으로 끝난 생애사건연속에 비해 결혼으로 진입하는데 있어 불리함을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적령기까지는 각각의 생애사건연속이 이질적인 영향을 갖는 것이 남자의 경우 우리가 가정한 순서규범의 준수로 해석되고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순서규범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이는 또한 우리가 앞서 논의한대로 한국 여성의 경우 교육을 마치고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삶의 과정에 규범적인 이행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행형태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결혼적령기를 지나면 여자의 경우 생애사건연속의 이질적 영향이 사라진다. 생애사건연속들이 정돈된 생애과정내에서나 흐트러진 생애과정내에서 모두 통계적으로는 동질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각의 생애사건연속의 모수측정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질적인 영향을 가정하는 모델도 동질적인 영향을 가정하는 모델에 비해 모델의 적합도가 나아지지 않는다. 본 분석상으로는 결혼적령기를 넘긴 여자의 경우 어떤 요인이 결혼으로의 이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지

적할 수 없지만 여자의 활동상태는 결혼으로 이행하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좀 더 확대 해석하자면 결혼적령기를 넘긴데 대한 부정적 제재를 최소화 하기 위해 결혼할 기회가 주어지면 결혼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남자는 결혼적령기를 지나도 생애사건연속이 이질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흐트러진 삶의 영역에서, 즉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남자는 결혼으로 이행이 어려움이 드러났다. 이 결과는 한국 남자의 경우 결혼으로 이행하는데 직장이라는 조건-이 논문에서 정의한 순서규범-이 충족되어야 결혼으로 이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83년의 자료를 가지고 결혼으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생애사건연속이 갖는 의미를 연령규범과 순서규범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결혼이 한국 남자와 여자에게 갖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보편혼이 한국의 결혼행태의 특징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결혼 및 그에 이어지는 가족생활에서 남자와 여자 역할의 차별적인 성격이 본 연구를 통해 뚜렷하게 부각되었다. 이 자료를 통해 보여지는 것은 한국의 결혼생활에서 남자는 경제적인 측면을 담당하고(breadwinner), 여자는 가정주부(homemaker)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결혼과 동시에 가정주부로의 지위전환이 매 연령층마다 거의 80%이상 나타나는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Eun, 1994: 183, 표 5-13).

이 연구결과는 또한 한국 남녀의 결혼연령이 이미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상태에 있는데도 왜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주는지를 밝히는 데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여겨진다. 왜 한국 남녀의 평균결혼연령은 한번도 하강국면없이 해방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는가? 남자와 여자의 결혼시기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남자의 결혼연령이 여자의 결혼연령의 함수이든지 아니면 여자의 결혼연령이 남자의 결혼연령의 함수로 이해될 수 있다(Oppenheimer 1988). 한국 남녀의 평균결혼연령차가 3~4세를 유지하고 있고, 결혼적령기를 넘어서면 여자의 경우 활동상태가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사라진다는 점, 또 결혼생활에서 남자의 역할이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여자는 결혼과 동시에 가정주부로 지위가 변한다는 점 등은 한국사회에서 여자의 결혼시기가 남자의 결혼시기에 따라 움직이는 관계임을 시사하고 있다. 만약 한국사회에서 여자의 결혼연령은 남자의 결혼연령에 따라 결정된다는 가설이 성립하고, 남자가 안정된 직장을 확보할 때까지 결혼을 미룬다는 가설이 성립한다면, 한국 남녀의 지

속적인 결혼연령의 상승을 해명하기 위해서 먼저 한국 남자의 결혼연령이 상승하는 이유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결혼 전 직업확보를 위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남녀의 결혼연령 상승이 단순히 교육기회의 증대로 인한 결혼의 연기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이미 높은 교육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외국의 경우 결혼연령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있는 사례를 생각해 볼 때 단순한 추리에 머무를 수 있다.

본 논문작업을 통해 우리는 결혼에 관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 한국 사회에 적합한 이론적인 작업이 필요함을 실감하며 아울러 현재시점에서 급속히 변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의식과 결혼행태의 변화를 계속 추적해 나가야 함을 다음 과제로 제시한다.

<참고문헌>

공세권 · 조애저 · 김승권 · 손성희(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귀자(1993),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살림.

Allison, Paul(1984), *Event History Analysis*, Newbury Park: Sage.

Blossfeld, Hans-Peter and Johannes Huinink(1991), "Human Capital Investments or Norms of Role Transition? How Women's Schooling and Career Affect the Process of Family Form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 143~68.

DiMaggio, Paul J. and Walter W. Powell(1991), "Introduction," Pp.1~38 in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 edited by Walter W. Powell and Paul J. DiMaggio.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un, Ki-Soo(1994),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n Korea: Sequences of Life Events and Their Consequences on the Timing of Marriage,"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Pennsylvania.

Hogan, Dennis P.(1981), *Transitions and Social Change: The Early Lives of American Men,* New York: Academic Press.

Hogan, Dennis P. and Nan Marie Astone(1986),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nnual Review of Sociology* 12: 109~30.

Kim, Byoung-Kwan(1993), "Structural Changes and Continuity: Industrialization and Patterns of Career Occupational Mobility in Korea, 1954~1983,"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Harvard University.

Kwon, Tai-Hwan(1982), "Marriage, The Family, and Fertility," in *The Determinants of Ferti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edited by Lee-Jay Cho et al.,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Marini, Magaret Mooney(1984), "Age and Sequencing Norms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Social Forces* 63: 229~44.

McLanahan, Sara S. and Aage B. Sorensen(1985), "Life Event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ver the Life Course," in *Life Course Dynamics: Trajectories and Transitions, 1968-1980,* edited by Glen H. Elde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Oppenheimer, Valerie K.(1988), "A Theory of Marriage Timing: Assortative Mating Under Varying Degrees of Uncertain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563~91.

Rindfuss, Ronald R.(1991), "The Young Adult Years: Diversity, Structural Change, and Family," *Demography* 28: 493~512.

Rindfuss, Ronald R., Gray Swicegood, and Rachel A. Rosenfeld.(1987), "Disorder in the Life Course: How Common and Does It Matte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785~801.

Yamaguchi, Kazuo(1991), *Event History Analysis,* Newbury Park: Sage.